일제 강점기의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상 질문 16개 | 확인 문제 24개 | 정답과 해설

앞 편에서는 개항 뒤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910년 국권 피탈 이후로 넘어갑니다. 일제의 경제 정책이 땅·기업·쌀·노동과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사람들은 생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봅니다.

이번 편을 읽는 세 질문

① **누가 정책을 정했을까?**

②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부담을 졌을까?**

③ **사람들은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

차례

1. 땅과 기업을 식민 지배의 틀에 넣다 — Q01~Q03

2. 쌀 생산과 농민의 생활을 함께 살피다 — Q04~Q05

3. 침략 전쟁이 경제와 삶을 바꾸다 — Q06~Q08

4. 생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다 — Q09~Q13

5. 차별을 바꾸고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다 — Q14~Q16

6. 핵심 정리 · **7.** 확인 문제 · **8.** 빠른 정답 · **9.** 정답과 해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시기로 보는 정책과 대응

	일제의 정책	대응·사회 변화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회사령·허가제(1910) Q01~Q03	농민의 경작권 인정 안 됨 소작농 증가 Q01~Q02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1920~) 회사령 폐지(1920) 허가제 → 신고제 일본 상품 관세 철폐 Q03~Q05	물산 장려 운동 암태도 소작 쟁의 1923~1924 형평 운동·여성 운동 소년 운동 원산 총파업(1929) Q10~Q14
1930년대 이후	만주 사변(1931) 병참 기지화 중일 전쟁(1937) 국가 총동원법(1938) 태평양 전쟁(1941) Q06~Q08	전시 동원 피해 생활 통제 Q07~Q08

시기 전체에 걸친 변화

농촌을 떠나거나 남아 요구한 농민 Q09

도시 생활의 변화와 격차 Q15~Q16

> 일제의 정책은 시기마다 바뀌었고, 사람들은 각 시기의 문제에 맞서 생계와 권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1 땅과 기업을 식민 지배의 틀에 넣다

Q01 일제는 왜 전국의 땅을 조사했나요?

한 줄 답

토지의 소유 관계와 가격 등을 파악하여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고,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낯선 말

조선 총독부	1910년 국권 피탈 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통치 기관.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년 일제가 토지의 소유 관계·가격 등을 조사하고 정리한 사업.
지세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기한부 신고제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한 방식.
경작권	이 단원에서는 농민이 관습에 따라 땅을 계속 빌려 농사지을 수 있었던 권리.
소유권	어떤 재산을 자기 것으로 보유하고 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

1910년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한국을 직접 지배할 경제적 기반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을 실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신고한 땅을 소유지로 인정하는 **기한부 신고제**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측량과 소유자 확정 절차도 거쳤습니다.

땅의 주인과 넓이·가격을 파악하면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거둘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토지 조사 사업 뒤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늘어났고**,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민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농민이 관습적으로 누리던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독부 소유가 된 많은 토지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에 넘어갔고, 이 회사는 대지주로 성장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 **토지 조사 사업 = 1910~1918 · 기한부 신고제 · 총독부 지세 수입 증가 · 농민의 경작권 인정 안 됨**

Q02 농사짓는 사람과 땅 주인은 같은 사람 아닌가요?

한 줄 답

자기 땅을 경작하는 농민도 있었지만, 소작농은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소작료를 냈습니다.

낯선 말

경작	땅을 갈고 곡식이나 채소 등을 기르는 일.
지주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소작료를 받는 사람.
소작농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
소작료	땅을 빌려 농사짓는 대가로 지주에게 내는 곡식이나 돈.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년 일본이 한국에서 토지 경영과 일본인의 이주 등을 추진하려고 세운 회사.

논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논의 주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과 **땅에서 농사짓는 것**은 구별됩니다.

토지 조사 사업 뒤 땅의 소유자인 지주는 총독부에 **지세**를 냈고,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냈습니다. 지세는 세금이고, 소작료는 땅을 빌려 쓰는 대가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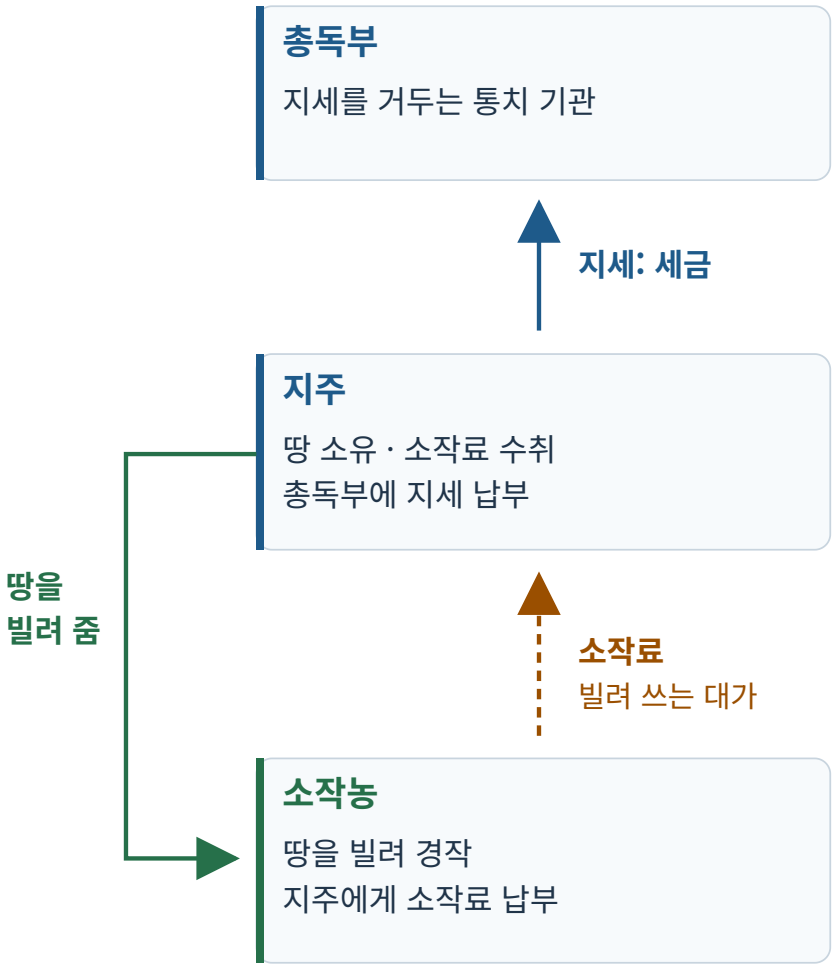
지주를 집주인, 소작농을 세입자에 견주면 소작료는 월세, 지세는 집주인이 나라에 내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당시 소작농은 수확물로 소작료를 내기도 했으며, 높은 소작료와 다음 해 경작을 보장받기 어려운 식민지 농촌의 조건 속에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토지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경작 농민이 관습적으로 누리던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총독부에서 토지를 넘겨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소작료를 받는 대지주로 성장했습니다. 총독부는 통치 기관이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토지 경영 등에 관여한 회사입니다. 두 이름의 역할을 구별해 둡니다.

총독부·지주·소작농과 두 가지 납부



>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냈고, 땅의 소유자인 지주는 총독부에 지세를 냈습니다.

시험 포인트

- **지주 = 땅 소유 · 소작료 수취 · 총독부에 지세 납부**
- **소작농 = 땅을 빌려 경작 · 지주에게 소작료 납부**
- **동양 척식 주식회사 = 1908 · 대지주**

Q03 회사를 세우기 쉬워졌다면 한국 기업도 유리해졌나요?

한 줄 답

회사 설립 절차가 완화된 뒤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어 한국 기업은 더 어려운 경쟁에 놓였습니다.

낯선 말

회사령	1910년 공포되어 회사의 설립·운영을 조선 총독의 허가와 감독 아래 둔 법령.
허가제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
신고제	정해진 사항을 관청에 알리는 방식.
관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
민족 기업	이 단원에서는 한국인이 경영하며 민족 경제의 성장을 추구한 기업.

1910년대 일제는 **회사령**으로 기업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은 억제되었습니다.

일제는 일본 자본이 한국에 쉽게 들어오도록 **1920년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 회사 설립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도 없어지면서 일본의 자본과 상품이 한국 시장에 더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가게를 열 때 받던 허가가 간단한 신고로 바뀌었다고 해 봅시다. 작은 가게에도 기회가 생기지만, 큰 자본과 물류망을 가진 업체가 함께 들어오면 경쟁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식민지에서는 자본의 차이뿐 아니라 총독부의 지배와 민족 차별까지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바뀐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자본과 상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사 설립 절차의 변화



> 회사 설립 절차가 완화된 뒤 일본 자본과 상품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은 거센 경쟁에 놓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 **회사령 = 1910 공포 · 허가제 · 한국 기업 설립 억제**
- **1920 폐지 = 신고제 · 일본 자본 진출 확대 · 민족 기업의 경쟁 심화**

2 쌀 생산과 농민의 생활을 함께 살피다

Q04 산미 증식 계획은 누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나요?

한 줄 답

일본에 공급할 쌀을 늘려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낯선 말

산미	생산한 쌀.
증식	양을 늘리는 것.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부터 일제가 일본에 보낼 쌀을 늘리려고 추진한 농업 정책.
수리 시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거나 논밭으로 보내는 시설.
수리 조합비	농업용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수리 조합에 내는 비용.
비료 대금	작물이 잘 자라도록 주는 비료를 사는 데 드는 돈.

일본에서는 공업화와 도시의 성장 등으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일제는 한국에서 쌀을 더 생산하여 일본에 보내려 했고, **192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물을 대는 시설을 고치거나 늘리고, 품종을 개량하고 비료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산을 시도했습니다. **쌀이 늘었는지와 농민의 삶이 나아졌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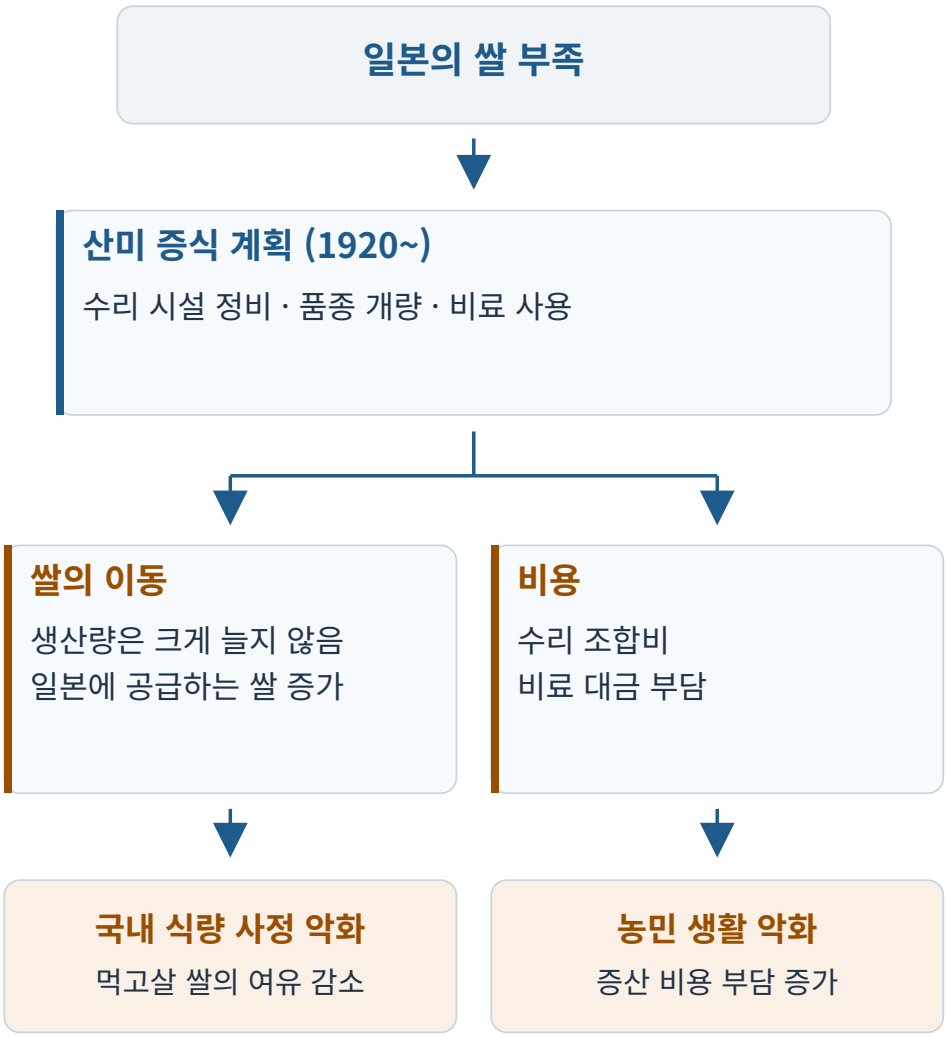
실제로 쌀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일본에 공급하는 쌀은 늘어 **한국의 식량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또 농민은 **수리 조합비와 비료 대금** 같은 증산 비용을 부담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쌀의 이동과 농민이 치른 비용, 이 두 갈래가 함께 농민의 생활을 압박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우리 집 텃밭에서 채소 수확을 늘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늘어난 수확보다 더 많은 채소를 옆집으로 보내고 비료값도 우리가 낸다면, 우리 식탁에 남는 채소는 줄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쌀은 시장을 거쳐 일본으로 팔려 나갔으며, 쌀을 파는 지주와 소작료·증산 비용을 부담하는 농민의 처지도 달랐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두 갈래 결과



> 산미 증식 계획 아래에서 일본에 공급하는 쌀은 늘었고, 농민은 증산 비용까지 부담하여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시험 포인트

- **산미 증식 계획 = 1920~ · 일본의 식량 문제 해결 · 한국의 식량 사정 악화 · 수리 조합비·비료 대금 부담**

Q05 쌀 생산량과 일본 이출량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 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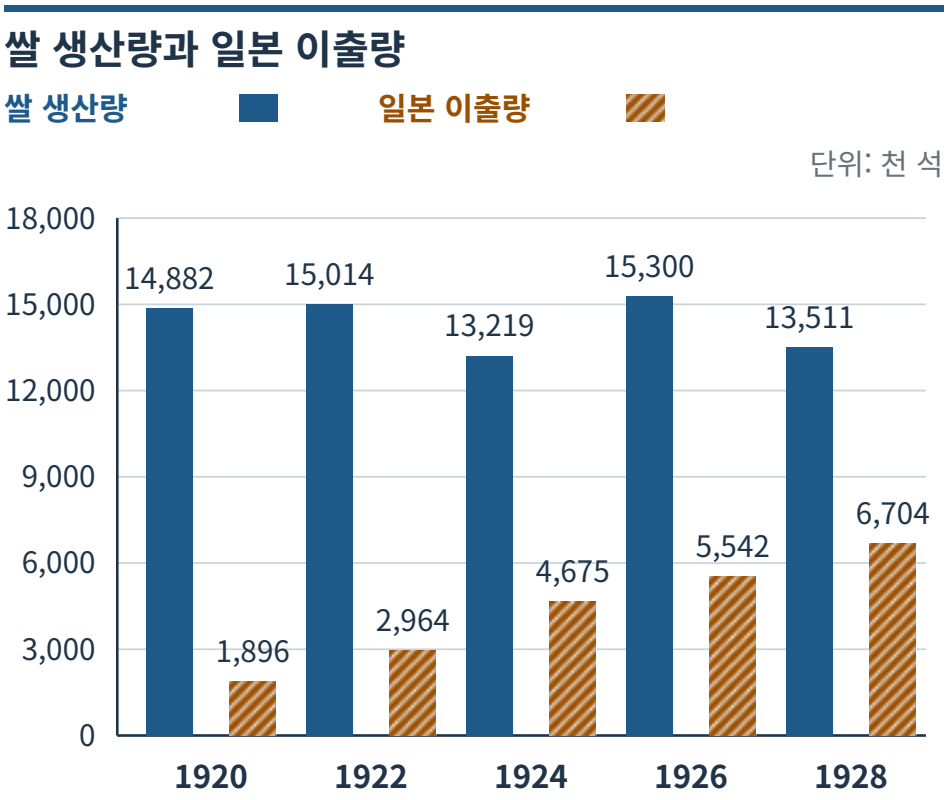
한 줄 답

제시된 해의 생산량은 오르내렸지만 일본 이출량은 늘었고, 1928년에는 1920년보다 일본 이출량을 뺀 쌀의 양이 줄었습니다.

낯선 말

생산량	일정 기간에 만들어 내거나 거두어들인 양.
일본 이출량	당시 통계에서 한국의 쌀을 일본으로 내보낸 양. 여기서 '이출'은 일본으로 내보낸다는 뜻.
석	곡식의 부피를 재던 단위.
비용 부담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자원을 감당하는 것.

다음은 1920년대 쌀 생산량과 일본 이출량의 일부 수치입니다. 단위는 **천 석**입니다. 수치를 외우기보다 생산량과 일본 이출량의 변화 방향을 비교해 봅니다.



첫째, 제시된 해의 생산량은 오르내립니다. 1920년보다 1928년의 생산량이 적으므로, 이 자료를 '생산량이 계속 늘었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일본 이출량은 제시된 해마다 늘었습니다. 생산량에서 일본 이출량을 뺀 단순 차이는 1920년 12,986천 석에서 1928년 6,807천 석으로 줄었습니다. 일본 이출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13%에서 약 50%로 높아졌습니다.

생산량–일본 이출량 (단순 차이 · 천 석)

1920	1922	1924	1926	1928
12,986	**12,050**	**8,544**	**9,758**	**6,807**

중간 시점의 비율: 1922 약 20% · 1924 약 35% · 1926 약 36%

전국 생산량을 10가마로 환산

1920년



약 1.3가마 · 약 13%

1928년



약 5.0가마 · 약 50%

자료: 조선 총독부 『농업 통계표』(1930)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1920~1930) · 정미·현미·기타 합계

> 제시된 해의 쌀 생산량은 오르내렸지만 일본 이출량은 늘었으며, 생산량 중 일본 이출량의 비율은 1920년 약 13%에서 1928년 약 50%로 높아졌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전국의 쌀 생산량을 10가마로 줄여 생각하면, 일본 이출량은 1920년 약 1.3가마, 1928년 약 5가마에 해당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남은 쌀도 지주·소작농·도시 주민에게 고르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셋째, 농민은 **수리 조합비와 비료 대금** 같은 증산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지주에게 소작료를 낸 뒤 증산 비용까지 치르면서 많은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이출량 증가에 따른 식량 사정 악화와 농민의 비용 부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 **쌀 자료 = 생산량 변동 · 일본 이출량 증가 · 생산량 중 일본 이출량 비율 약 13%(1920)→약 50%(1928)**
- **농민 생활 악화 = 식량 사정 악화 + 증산 비용 부담**

3 침략 전쟁이 경제와 삶을 바꾸다

Q06 1930년대에 공장이 늘어난 까닭은 무엇인가요?

한 줄 답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공급받으려고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낯선 말

만주 사변	1931년 일본군이 중국 동북부의 만주를 침략한 사건.
중일 전쟁	1937년 일본이 중국 침략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일으킨 전쟁.
병참	군대에 필요한 식량·무기·연료 등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일.
병참 기지화	어떤 지역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만드는 것.
군수 공장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지하자원	땅속에서 얻는 석탄·철광석 등의 자원.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며 침략을 확대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금속·연료·화학 제품과 같은 물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제는 한국에 금속·화학 공장을 세우고 지하자원 생산을 늘렸습니다. 철도와 항만도 원료와 제품을 운반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산업과 자원을 일본의 전쟁 수행에 연결한 것이 **병참 기지화**입니다.

공장과 공업 도시가 늘면서 한국인 노동자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 조건과 임금 차별, 생산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병참 기지는 전쟁터 뒤에서 무기·연료·식량을 마련해 보내는 '보급 창고 겸 공장'에 견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물자의 보관·생산뿐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까지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한국을 전쟁의 보급 창고로 만들다

한국의 자원·공장

지하자원: 석탄·철광석 등
금속·화학 공장: 전쟁 물자 생산

↓

철도·항만

원료와 제품을 운반

↓

만주·중국의 전쟁터

일본군에 물자 공급
일본의 침략 전쟁을 뒷받침

> 일제는 한국의 자원과 공장에서 마련한 물자를 철도·항만을 통해 침략 전쟁에 공급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 **병참 기지화 = 1930년대 이후 · 일본의 침략 전쟁 · 금속·화학 공장과 지하자원 · 전쟁 물자 공급**
- **배경 = 만주 사변(1931) · 중일 전쟁(1937)**

Q07 국가 총동원법은 사람만 전쟁에 동원한 법인가요?

한 줄 답

사람의 노동력뿐 아니라 식량·금속 등도 전쟁에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낯선 말

국가 총동원법	1938년 일본이 전쟁 수행을 위해 인력과 물자 등을 폭넓게 동원·통제하려고 만든 법.
공출	국가가 정한 물자를 내놓게 하는 제도. 이 시기에는 식량을 강제로 거두는 수단으로 이용됨.

군량미	군대의 식량으로 쓰는 쌀.
유기	놋쇠로 만든 그릇이나 기물.
태평양 전쟁	1941년 일본이 미국 등을 상대로 태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서 벌인 전쟁.
생활 통제	권력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생활 방식을 제한하거나 정하는 것.
국민복	전시 일본이 보급한 남성용 표준 복장.
몸빼	활동하기 편한 통이 넓은 바지. 전시 체제 아래 여성에게 착용이 강요됨.

중일 전쟁이 길어지자 일본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한국에도 적용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전쟁(1941)이 일어나면서 인력과 물자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쟁이 가져간 인력과 물자



>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식량·금속을 동원했으며, 일상의 옷차림도 통제했습니다.

전쟁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농가의 곡식, 집 안의 그릇,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의 몸과 시간까지 전쟁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일상의 생계와 전쟁 수행이 강제로 연결된 것**입니다.

일제는 일상의 옷차림도 통제하여 **흰옷 대신 색깔 있는 옷**을 입도록 강요했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에는 남성에게 국민복, 여성에게 몸빼 착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옷차림 통제는 주민이 스스로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인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 **국가 총동원법 = 1938 · 인력·물자 동원과 통제**
- **공출 = 군량미 등 식량 수탈**
- **생활 통제 = 색깔 옷 강요 · 중일 전쟁 이후 국민복·몸빼**

Q08 전쟁터·공장·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피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한 줄 답

군사 동원, 강제 노동, 일본군의 성폭력은 서로 다른 피해였으며, 모두 인간의 삶과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낯선 말

징병	국가가 법령에 따라 사람을 군인으로 강제로 모집하는 것.
징용	국가가 사람을 특정 노동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
여자 근로 정신대	전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들을 공장 등으로 동원한 조직.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 성적 착취와 폭력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가리키는 말.

일제는 지원병제와 징병제를 통해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국내외의 탄광·광산·군수 공장 등으로 보내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동원 과정에는 강제성뿐 아니라 속임수와 압박도 작용했습니다.

여성들도 **여자 근로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공장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군의 위안소 제도 아래에서 성적 착취와 폭력을 강요당했습니다. **여자 근로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같은 뜻의 이름이 아닙니다.** 노동 동원과 성적 착취라는 피해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할 것	제도·이름	핵심 내용
군사 동원	지원병제·징병제	전쟁 수행을 위한 군 복무 등에 사람을 동원
노동 동원	징용·여자 근로 정신대	광산·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일본군 '위안부'	군 위안소로 끌려가 성적 착취와 폭력을 강요당함

피해는 전쟁이 끝났다고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를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할 때에도 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 **군사 동원 = 지원병제·징병제**
- **노동 동원 = 징용·여자 근로 정신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 = 강제로 끌려감 · 성적 착취와 폭력**

4 생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다

Q09 농촌에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한 줄 답

일부는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국외로 이동했고, 일부는 농촌에 남아 생계 조건을 바꾸려 했습니다.

낯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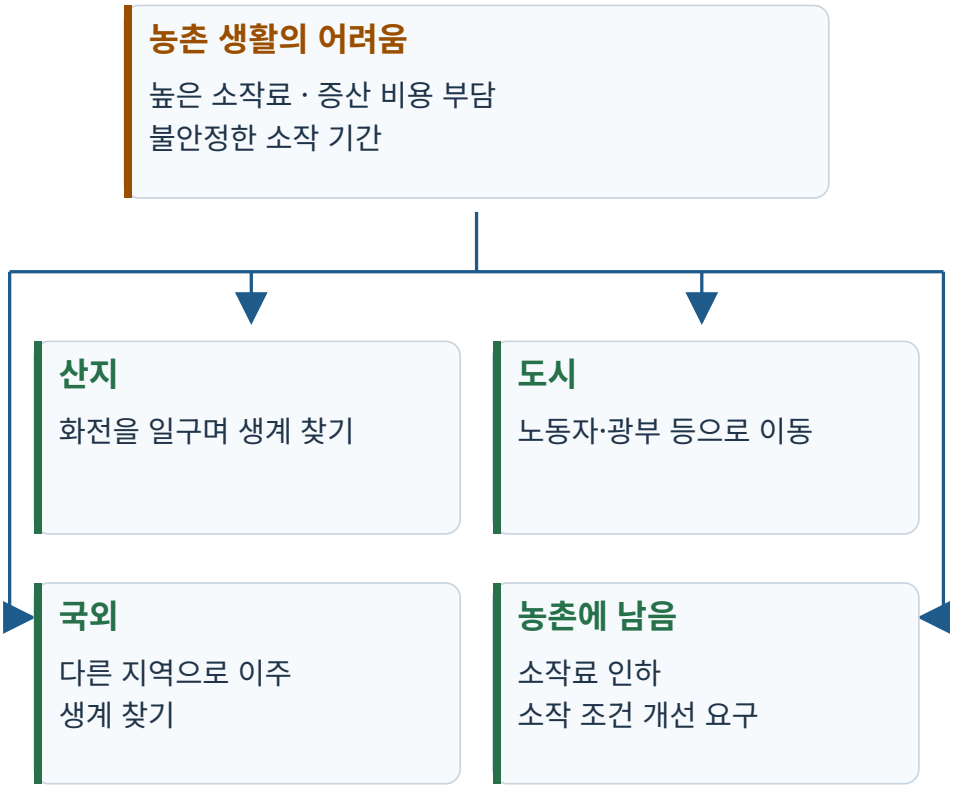
소작 기간	땅을 빌려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한 기간.
화전민	산지에서 나무나 풀을 태운 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들.
국외 이주	살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
생존권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토지를 잃거나 소작료와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농민은 생활의 터전을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소작 기간까지 불안정하면 이듬해에도 같은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산지에서 화전을 일구는 사람이 생겼고, 도시로 가 공장 노동자나 광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외로 이주하여 생계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나 국외로 떠났다고 해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촌에 남은 농민 중에는 힘을 모아 **소작료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농사짓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떠나는 길과 남아서 요구하는 길은 농촌의 어려움에 대응한 서로 다른 움직임입니다.

농민들의 여러 대응



하나의 이동 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대응

> 농촌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화전·도시·국외에서 생계를 찾거나 농촌에 남아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 **농촌의 어려움 = 높은 소작료 · 불안정한 소작 기간**
- **대응 = 화전 · 도시 이동 · 국외 이주 · 소작 조건 개선 요구**

Q10 소작 쟁의에서 농민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한 줄 답

높은 소작료를 낮추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소작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낯선 말

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집단 행동.
소작 쟁의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료 인하나 소작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한 집단 행동.
비호	감싸고 보호함.

소작농에게 수확은 곧 생활의 바탕이었습니다. 수확 가운데 큰 몫을 소작료로 내고 여러 비용까지 부담하면 가족이 먹고살 몫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료 인하와 소작 기간의 안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라남도 암태도의 소작 쟁의(1923~1924)**입니다. 농민들은 지주와 그를 비호하는 일제 경찰에 맞서 약 1년 동안 싸웠고, 높은 소작료를 **수확의 4할(40%)로 낮추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개별 농민이 지주에게 요구할 때보다 여러 농민이 함께 요구하면 문제를 널리 알리고 공동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소작 쟁의는 이렇게 생계 조건을 바꾸기 위한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 암태도 농민들은 힘을 모아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고, 지주와 일제 경찰의 압박에 맞섰습니다. (역사적 재구성 그림)

시험 포인트

- **암태도 소작 쟁의 = 1923~1924 · 전남 암태도 농민 · 지주·일제 경찰에 저항 · 소작료 4할 합의**

Q11 공장과 노동자가 늘었는데 왜 파업이 일어났나요?

한 줄 답

많은 한국인 노동자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민족 차별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임금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
노동 쟁의	노동자가 임금·노동 시간·작업 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행동.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를 관철하려고 집단으로 일을 멈추는 행동.
총파업	여러 작업장이나 직종의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큰 규모의 파업.

일제 강점기에 공업 도시가 생기고 노동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본인 노동자와의 임금 차별도 겪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며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파업 등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원산 총파업(1929)은 대표적인 노동 운동입니다. 1928년 원산 인근 제유 공장에서 일본인 관리자가 한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그 뒤의 갈등을 계기로, 1929년 여러 노동자가 연대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 계속되었지만 일제와 자본가의 탄압 속에서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공동 행동과 연대를 보여 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 **원산 총파업 = 1929 · 일본인 관리자의 한국인 노동자 폭행이 발단 · 약 4개월 · 결과: 요구 관철 실패 · 의의: 노동자 연대**

Q12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도 항일 운동인가요?

한 줄 답

네. 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이면서, 그 과정에서 일제의 차별과 탄압에 맞섰기 때문에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도 띠었습니다.

낯선 말

항일 민족 운동	일제의 침략·지배·민족 차별에 맞서 민족의 권리를 지키려 한 운동.
연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것.

농민은 높은 소작료와 불안정한 경작 조건 때문에,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출발점은 가족의 생활과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차별이 있었고, 일제 경찰이 지주나 회사 측을 비호하며 운동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을 개선하려는 요구는 이런 식민 지배의 억압에 맞서는 행동과 연결되었습니다.

농민·노동 운동의 요구와 성격

남쪽 섬의 농민 · 북쪽 항구 도시의 노동자



원산(함경남도)
동해안 항구 도시

독도

암태도 (전라남도)
남서 해안의 섬

당시 도 단위 표기

소작 쟁의

주체: 소작농
요구: 소작료 인하
소작 조건 개선
암태도 (1923~1924)
결과: 소작료 4할 합의
지주·일제 경찰에 저항

노동 쟁의

주체: 노동자
요구: 임금·노동 조건
원산 (1929)
결과: 요구 관철 실패
의의: 노동자 연대
차별·일제 탄압에 저항

공통: 생존권 투쟁 + 항일 민족 운동
생활을 지키려는 요구가 차별·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연결

> 농민과 노동자는 생계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의 차별과 탄압에도 저항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농민·노동 운동에는 **생존권 투쟁과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 **농민·노동 운동 = 생존권 투쟁 + 항일 민족 운동**
- **소작 쟁의 = 소작료 인하**
- **노동 쟁의 = 임금·노동 조건 개선**

Q13 물산 장려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국채 보상 운동은 모금으로 나라의 빚을 갚으려 했고, 물산 장려 운동은 한국인이 만든 상품을 쓰며 민족 산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낯선 말

물산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
물산 장려 운동	한국인이 만든 상품의 생산·소비를 장려하여 민족 산업을 키우려 한 운동.
경제적 자립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경제를 꾸려 나갈 힘을 갖추는 것.

1920년대 일본 기업과 상품의 진출이 본격화되자 민족 기업은 거센 경쟁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국인이 만든 상품을 사용하여 민족 산업을 키우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를 민족 기업의 성장에 연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에는 우리 상품을 사용하여 민족 산업을 키우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를 생산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상품 가격이 오르는 등 한계가 생겨 운동의 기세가 약해졌습니다.

앞 편에서 배운 국채 보상 운동과는 행동 방식이 다릅니다.

모금과 상품 소비의 차이

국채 보상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시기 1907년	**시기** 1920년대
문제의식 일본에 진 나라의 빚 경제적 자주권 위협	**문제의식** 일본 자본·상품 진출 민족 기업의 위기
참여 방법 금연·금주 등 절약 성금 모금	**참여 방법** 한국 상품의 생산·소비 장려
직접 목표 나라의 빚 상환	**직접 목표** 민족 산업 육성 경제적 자립
결과 통감부 방해로 중단 빚 상환 목표 미달	**결과** 생산의 한계·가격 상승 운동의 기세 약화

공통: 경제적 자주성을 지키려 한 운동

> 국채 보상 운동은 모금과 빚 상환을, 물산 장려 운동은 한국 상품의 생산·소비와 민족 산업 육성을 연결했습니다.

두 운동은 경제적 자주성을 지키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금을 모으는 일**과 **상품을 구매하는 일**을 같은 행동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 **국채 보상 운동 = 1907 · 성금 · 빚 상환 목표 · 통감부 방해로 중단**
- **물산 장려 운동 = 1920년대 · “내 살림 내 것으로” · 민족 산업 육성 · 생산·가격의 한계**

5 차별을 바꾸고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다

Q14 신분제가 없어졌는데도 왜 차별 철폐 운동이 필요했나요?

한 줄 답

법으로 신분제를 없애는 것과 생활 속 편견·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편견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는 생각.
백정	조선 시대에 도축업 등에 종사하면서 심한 신분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형평 운동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운동.
여성 운동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교육·사회 활동의 기회와 지위를 높이려 한 운동.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	어린이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자고 한 운동.
인격적 대우	한 사람의 존엄과 생각을 존중하는 대우.

갑오개혁으로 법적인 신분제가 폐지된 뒤에도 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이나 집안의 배경을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에 백정들은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벌였습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일부 여성들도 여성의 지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여성에게 배움과 사회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여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에서는 어린이를 어른의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존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배경과 요구는 서로 달랐지만, **차별받던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하자**는 방향을 함께 보여 줍니다.

차별을 바꾸려 한 사람들

형평 운동 · 백정

문제: 신분적 편견과 사회적 차별
요구: 차별 철폐 · 평등한 대우

여성 운동 · 여성

문제: 교육·사회 활동의 기회와 성별 차별
요구: 여성의 지위 향상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 · 어린이

문제: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관행
요구: 인격적 대우

공통 방향: 존엄과 권리 확대

> 백정·여성·어린이를 둘러싼 운동은 서로 다른 차별을 바꾸며 존엄과 권리를 넓히려 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 **형평 운동 = 백정 · 차별 철폐·평등**
- **여성 운동 = 지위 향상**
-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 =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

Q15 도시에 사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 줄 답

교통·통신과 상업 시설이 늘고, 옷차림·주거·여가 생활에 새로운 문화가 퍼졌습니다.

낯선 말

대중문화	많은 사람이 접하고 즐기는 문화.
문화 주택	당시 새로운 생활 방식에 맞추어 지은 서양식 주택.
토막집	도시 변두리나 하천 변 등에 판자·흙 등으로 허술하게 지은 집.
개량 한옥	기존 한옥의 구조나 생활 설비를 새로운 생활 방식에 맞게 바꾼 주택.
모던 걸·모던 보이	서양식 옷차림과 새로운 소비문화를 받아들인 당시 젊은 여성(모던 걸)과 남성(모던 보이)을 부르던 말.

일제 강점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백화점·영화관·음식점 같은 시설이 늘었습니다. 개량 한옥과 서양식 **문화 주택**이 등장했고, 양복·양장을 입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커피·캐러멜 같은 기호 식품과 새로운 여가 문화도 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이동하고, 쉬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모던 걸·모던 보이라는 말은 서양식 문화와 새로운 소비생활을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비문화를 누리는 정도는 사람의 소득과 처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같은 도시에도 백화점에 드나드는 사람과 변두리나 하천 변의 **토막집**에서 살아가는 빈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리의 화려한 모습만으로 도시 주민 전체의 생활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에는 새로운 교통과 소비문화가 퍼졌지만, 이를 누리는 정도와 주거 환경은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역사적 재구성 그림)

시험 포인트

- **도시 생활 = 전차·백화점·영화관 · 개량 한옥·문화 주택 · 양복·양장·모던 걸·모던 보이**
- **생활 격차 = 새로운 소비문화와 빈민의 토막집 공존**

Q16 전차와 공장이 생기면 식민지 주민의 삶도 좋아진 것 아닌가요?

한 줄 답

시설은 늘었지만 식민 지배와 수탈에 우선 이용되었고, 많은 한국인은 빈곤과 차별을 겪었습니다.

낯선 말

지배 주체 시설을 소유·운영하며 그 이용 방향을 정하는 쪽.

전차·철도·공장 같은 시설이 늘면 이동과 생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누가 시설을 지배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이용하거나 일했는지**에 따라 생활에 미친 영향은 달라집니다.

일제는 철도·도로·항만을 늘렸습니다. 이 시설은 상품과 자원을 운반하고 식민 지배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시설	누가 지배했나	무엇을 위해 썼나	한국인은 어떤 조건이었나
철도	총독부 등 일제가 건설·운영을 주도	쌀·자원 운반, 군대·물자 수송과 식민 지배	이동에 이용했지만, 건설·운영은 식민 지배와 수탈에 우선 연결됨

일제가 들여온 시설과 문물은 일본인의 생활 편의와 식민 지배, 전쟁 수행에 우선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은 도시 빈민으로 살거나 공장에서 낮은 임금과 차별을 겪었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변화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과 새로운 시설이 누구의 목적에 쓰였으며 사람들이 어떤 부담과 차별을 겪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 **시설 평가 = 지배 주체 · 이용 목적 · 주민의 생활·노동 조건**
- **식민지 시설 = 식민 지배·수탈에 이용 · 주민 사이의 생활 격차**

6 핵심 정리

정책의 목적과 영향을 묶어 보기

시기·정책	일제의 목적·행동	한국 사회의 변화와 부담
1910~1918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정보 정리·과세 기반 확보	총독부 지세 수입 증가·농민의 권리 약화와 소작농화
1910년대 회사령	회사 설립·운영을 허가와 감독 아래 둠	한국 기업 설립 억제
1920년 회사령 폐지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꿈	일본 자본 진출 확대·민족 기업의 경쟁 심화
192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	일본에 보낼 쌀 증산	일본 이출량 증가·농민의 비용 부담·생활 악화
1930년대 이후 병참 기지화	침략 전쟁의 물자·자원 확보	금속·화학 공장과 자원 생산 확대·노동자 증가
1938년 국가 총동원법	전시 인력·물자 동원과 통제	강제 동원·공출·금속 수탈·생활 통제 강화

사람들의 요구를 구별하기

주체·운동	바꾸려 한 문제	기억할 연결
소작농·소작 쟁의	높은 소작료·불안정한 소작 조건	암태도 1923~1924·소작료 4할 합의
노동자·노동 쟁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차별	원산 1929·노동자 연대·탄압 속 요구 관철 실패
물산 장려 운동 참여자	일본 자본·상품 진출로 인한 민족 기업의 위기	1920년대·한국 상품 생산과 소비·민족 산업
백정	사회적 편견과 차별	평등한 대우·형평 운동
여성	성별에 따른 기회·지위의 차별	여성의 지위 향상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 참여자	어린이에 대한 무시와 억압	인격적 대우

헷갈리는 판단 바로잡기

살펴볼 말	바르게 판단하기
땅을 경작한다	땅을 소유한다는 뜻과 구별
회사 설립 절차가 완화된다	자본이 큰 일본 기업의 진출과 경쟁까지 확인
쌀을 더 생산하려 한다	실제 생산량·일본 이출량·농민 비용을 각각 확인
공장과 전차가 늘어난다	시설의 목적과 주민의 생활·권리를 함께 확인
신분제를 법으로 없앴다	생활 속 편견·차별이 남았는지 확인
같은 경제적 자주성 목표를 가진다	국채 보상은 모금·빚 상환, 물산 장려는 생산·소비·민족 산업

7 확인 문제

객관식은 가장 알맞은 답 하나를 고릅니다. 서술형은 제시된 조건을 확인하고 씁니다.

01 객관식

1910~1918년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한 목적과 결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군량미 확보 — 전시 공출이 시작되었다.

② 민족 산업 육성 — 한국 기업에 보호 관세를 주었다.

③ 식민 통치 기반 마련 —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늘었다.

④ 일본의 쌀 부족 해결 —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하였다.

⑤ 소작농의 경작권 보호 — 관습적 경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02 객관식

다음 두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논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
(나) 그 논을 빌려 농사짓고 수확의 일부를 (가)에게 냈다.

① (가)는 지주이고, (나)가 내는 곡식은 소작료이다.

② (나)는 지주이고, (가)는 소작농이다.

③ (가)는 총독부이고, (나)가 내는 곡식은 지세이다.

④ (나)가 농사를 지었으므로 논의 소유자도 반드시 (나)이다.

⑤ (가)가 내는 소작료를 (나)가 임금으로 받는다.

03 객관식

1910년대 회사령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어 일본 자본의 진출을 쉽게 하였다.

②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소유지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일본에 보낼 쌀을 늘리려고 수리 시설을 정비하였다.

④ 일본 상품의 관세를 없애 한국 시장 진출을 쉽게 하였다.

⑤ 회사 설립을 조선 총독의 허가 아래 두었다.

04 객관식

1920년대 회사 설립 절차와 시장의 변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일본 기업의 진출 확대

②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일본 기업의 진출 확대

③ 허가제 유지 —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④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민족 기업의 경쟁 완화

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05 객관식

산미 증식 계획의 직접적인 목적은?

①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여 총독부의 지세 수입 늘리기

② 한국인이 만든 상품의 소비를 늘려 민족 산업 키우기

③ 금속·화학 공장을 늘려 침략 전쟁에 물자 공급하기

④ 일본에 공급할 쌀을 늘려 일본의 식량 문제 해결하기

⑤ 한국 농민의 쌀 소비를 늘려 국내 식량 사정 개선하기

06 객관식

다음 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천 석)

연도	쌀 생산량	일본 이출량
1920	14,882	1,896
1924	13,219	4,675
1928	13,511	6,704

① 제시된 세 시점의 생산량과 일본 이출량이 모두 계속 줄었다.

② 생산량은 오르내렸지만 일본 이출량은 늘었다.

③ 1928년에는 일본 이출량이 전체 생산량보다 많았다.

④ 일본 이출량이 늘었으므로 한국 농민의 생활도 반드시 좋아졌다.

⑤ 1920년보다 1928년에는 일본 이출량이 줄어, 생산량에서 이를 뺀 쌀의 양이 늘었다.

07 객관식

1930년대 이후 한국에서 금속·화학 공장과 지하자원 생산이 확대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토지 조사 사업으로 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늘리려 했기 때문

② 회사령 폐지 뒤 민족 기업 보호를 공업 정책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

③ 물산 장려 운동으로 한국 상품의 소비를 늘리려 했기 때문

④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일본의 쌀 부족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

⑤ 일본의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한국에서 공급하려 했기 때문

08 객관식

국가 총동원법과 전시 수탈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1920년에 제정되어 민족 기업의 상품 구매를 장려하였다.

② 공출은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을 멈추는 행동이다.

③ 1938년 제정되었고 인력과 물자 등을 전쟁에 동원·통제하였다.

④ 군량미는 농민이 지주에게 내는 땅의 임대료이다.

⑤ 놋그릇과 제사 도구는 토지 소유자가 낼 지세를 대신하여 거두었다.

09 객관식

전시 동원의 용어를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징병은 군사 동원, 징용은 노동 동원과 연결된다.

② 여자 근로 정신대는 일본군 '위안부'와 완전히 같은 뜻이다.

③ 공출은 사람을 군인으로 모집하는 제도이다.

④ 징용은 농가의 쌀을 군량미로 거두는 제도이다.

⑤ 징병은 광산·공장에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제도이다.

10 객관식

농촌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도시로 간 농민들은 안정된 공장 일자리를 얻어 생활 문제를 해결하였다.

② 농촌에 남은 농민들은 소작료보다 공장 임금 인상을 주로 요구하였다.

③ 국외 이주는 1930년대 이후 전시 노동 동원 때에만 일어났다.

④ 화전·도시·국외에서 생계를 찾거나 농촌에 남아 소작 조건 개선을 요구하였다.

⑤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은 원산에서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쟁의를 벌였다.

11 객관식

암태도 소작 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산의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 운동이다.

②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1907년 시작한 모금 운동이다.

③ 농민들이 지주와 일제 경찰에 맞서 소작료 인하를 이루어 낸 운동이다.

④ 일본에 쌀을 더 보내기 위해 총독부가 실시한 정책이다.

⑤ 백정들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사회 운동이다.

12 객관식

1929년 원산 총파업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민들이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여 시작되었다.

② 일본 상품에 관세를 매기려는 총독부의 정책이었다.

③ 백정의 신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집회였다.

④ 원산 노동자들이 전시 공출에만 반대하여 일어났다.

⑤ 노동자들이 폭행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맞서 연대했으나 탄압으로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13 객관식

일제 강점기 농민·노동 운동이 지닌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이면서 식민지의 차별과 탄압에 맞선 항일 운동이었다.

② 소작 쟁의는 생계 문제만 다루어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는 관계가 없었다.

③ 노동 쟁의는 임금·노동 조건과 관계없이 독립만을 목표로 일어났다.

④ 소작 쟁의의 주체는 노동자이고, 노동 쟁의의 주체는 소작농이었다.

⑤ 민족 차별에는 반대했지만 임금·소작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14 객관식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의 참여 방식과 목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소작료 납부 거부 — 농지의 소작 기간 연장

② 나라에 성금 기부 — 일본에 진 국가 채무 상환

③ 집단으로 노동 중단 — 공장 노동 시간 단축

④ 한국인이 만든 상품 구매 — 민족 산업 육성과 경제적 자립

⑤ 군량미 공출 — 일본군의 전쟁 수행 지원

15 객관식

차별 철폐 운동과 그 요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형평 운동 —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 기회 확대

② 형평 운동 —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한 대우

③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 — 여성의 지위 향상

④ 여성 운동 —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

⑤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 — 백정의 신분적 편견과 차별 철폐

16 OX

1920~1928년의 제시된 쌀 통계에서 생산량과 일본 이출량은 모두 계속 증가했다.

답: (O / X)

17 OX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뒤에도 생활 속 편견과 차별이 남아 차별 철폐 운동이 필요했다.

답: (O / X)

18 단답형

1938년 제정되어 전쟁을 위한 인력·물자 등의 동원과 통제를 뒷받침한 법의 이름을 쓰시오.

답 _____

19 단답형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료 인하와 소작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행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답 _____

20 단답형

다음 구호를 내걸고 한국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한 운동의 이름을 쓰시오.

> “내 살림 내 것으로”
> “조선 사람 조선 것”

답 _____

21 순서 배열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가) 국가 총동원법 제정
(나) 산미 증식 계획 시작
(다) 원산 총파업
(라) 토지 조사 사업 시작

답 _____

22 짧은 서술형

산미 증식 계획 아래에서 많은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

[조건] ① 일본 이출량 증가 ② 농민의 비용 부담을 각각 설명할 것.

답

23 짧은 서술형

“전차와 백화점이 생겼으므로 당시 도시의 모든 한국인이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말에 반박하시오.

[조건] 새로운 시설이 생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의 처지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것.

답

24 짧은 서술형

다음 활동의 이름과 직접적인 목표를 각각 쓰시오.

(가) 1907년, 담배를 끊어 아낀 돈 등을 성금으로 내었다.
(나) 1920년대, 한국인이 만든 상품을 사용하자고 권하였다.

[조건] 가·나 각각 ‘운동 이름 + 직접적인 목표’를 쓸 것.

(가) 답

(나) 답

8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01	③	13	①
02	①	14	④
03	⑤	15	②
04	②	16	X
05	④	17	O
06	②	18	국가 총동원법
07	⑤	19	소작 쟁의
08	③	20	물산 장려 운동
09	①	21	(라) → (나) → (다) → (가)
10	④	22	예시 답안·채점 기준 참조
11	③	23	예시 답안·채점 기준 참조
12	⑤	24	예시 답안·채점 기준 참조

9 정답과 해설

01 정답 ③

- ① 오답: 전시 식량 동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결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 ② 오답: 총독부가 한국 기업을 보호하려 한 사업이 아닙니다.
- ③ 정답: 토지 정보를 정리하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여 식민 통치를 뒷받침했습니다.
- ④ 오답: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추진된 별개의 정책입니다.
- ⑤ 오답: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했지만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곳 · Q01

---

02 정답 ①

- ① 정답: 땅을 빌려 주는 소유자가 지주이고, 소작농이 경작의 대가로 내는 것이 소작료입니다.
- ② 오답: 소유자와 경작자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 ③ 오답: 자료는 개인 사이의 소작 관계이며, 총독부의 지세 징수와 다릅니다.
- ④ 오답: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과 법적인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오답: 소작료를 내는 쪽은 (나)이고 받는 쪽은 (가)입니다.

다시 볼 곳 · Q02

---

03 정답 ⑤

- ① 오답: 신고제로의 전환은 1920년 회사령 폐지 뒤의 변화입니다.
- ② 오답: 토지 조사 사업의 신고 절차와 회사 설립 허가를 혼동했습니다.
- ③ 오답: 산미 증식 계획의 방법입니다.
- ④ 오답: 1920년대 관세 철폐와 1910년대 회사령을 혼동했습니다.
- ⑤ 정답: 회사령은 회사의 설립·운영을 총독의 허가·감독 아래 두었습니다.

다시 볼 곳 · Q03

---

04 정답 ②

- ① 오답: 진출은 확대되었지만 회사 설립 절차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 ② 정답: 회사령 폐지로 절차가 완화되고 일본 자본의 진출이 확대되었습니다.
- ③ 오답: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회사령의 허가제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 ④ 오답: 설립 절차는 완화되었으나 일본 기업 진출로 민족 기업의 경쟁은 심해졌습니다.
- ⑤ 오답: 관세 철폐는 맞지만 회사 설립 절차의 변화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시 볼 곳 · Q03

---

05 정답 ④

- ① 오답: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과 결과에 연결되는 설명입니다.
- ② 오답: 물산 장려 운동의 목표입니다.
- ③ 오답: 1930년대 이후 병참 기지화의 목적입니다.
- ④ 정답: 일본에 보낼 쌀의 증산과 일본의 식량 문제 해결이 직접적인 목적이었습니다.
- ⑤ 오답: 한국 농민의 식생활 개선을 직접 목표로 삼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볼 곳 · Q04

---

06 정답 ②

- ① 오답: 일본 이출량은 세 시점 모두 증가했습니다.
- ② 정답: 생산량은 감소했다가 일부 늘었으며, 일본 이출량은 두 구간 모두 증가했습니다.
- ③ 오답: 1928년 일본 이출량 6,704는 생산량 13,511보다 작습니다.
- ④ 오답: 일본 이출량 증가로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증산 비용 부담까지 커져 많은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 ⑤ 오답: 일본 이출량은 늘었으며, 생산량에서 일본 이출량을 뺀 값은 12,986천 석에서 6,807천 석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볼 곳 · Q05

---

07 정답 ⑤

- ① 오답: 지세 확보는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되며 이 시기 금속·화학 공업 확대의 직접 배경이 아닙니다.
- ② 오답: 회사령 폐지는 일본 자본의 진출을 쉽게 했으며, 이 시기 공업 확대의 중심 목적은 전쟁 물자 확보였습니다.
- ③ 오답: 물산 장려 운동의 소비 활동과 일제의 전쟁용 공업 확대는 구별됩니다.
- ④ 오답: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에 공급할 쌀을 늘리는 정책으로, 금속·화학 공업 확대의 직접 배경과 다릅니다.
- ⑤ 정답: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확보하려는 병참 기지화와 연결됩니다.

다시 볼 곳 · Q06

---

08 정답 ③

- ① 오답: 제정 연도와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 ② 오답: 설명한 행동은 파업입니다.
- ③ 정답: 사람·식량·금속 등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통제했습니다.
- ④ 오답: 군량미는 군대의 식량으로 쓰는 쌀입니다.
- ⑤ 오답: 놋그릇과 제사 도구의 금속은 무기 재료로 수탈했으며, 토지에 부과하는 지세와 구별됩니다.

다시 볼 곳 · Q07

---

09 정답 ①

- ① 정답: 군인으로 동원하는 징병과 노동에 동원하는 징용을 구별했습니다.
- ② 오답: 공장 노동 동원 조직과 군 위안소 제도 아래의 피해를 같은 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오답: 공출은 정해진 물자를 내놓게 하는 제도입니다.
- ④ 오답: 식량 등 물자를 내놓게 하는 것은 공출이며, 징용은 노동 동원입니다.
- ⑤ 오답: 광산·공장 등의 노동 동원은 징용과 연결되고, 징병은 군사 동원입니다.

다시 볼 곳 · Q08

---

10 정답 ④

- ① 오답: 도시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 ② 오답: 농촌 소작농의 핵심 요구는 소작료 인하와 소작 조건 개선이었습니다.
- ③ 오답: 생계를 찾기 위한 국외 이주와 전시 노동 동원을 같은 일로 볼 수 없습니다.
- ④ 정답: 생활 터전을 옮기는 대응과 농촌에서의 집단 행동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 ⑤ 오답: 원산 총파업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 문제와 연결되며, 암태도 소작 쟁의와 구별됩니다.

다시 볼 곳 · Q09

---

11 정답 ③

- ① 오답: 원산 총파업과 암태도 소작 쟁의를 혼동했습니다.
- ② 오답: 국채 보상 운동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③ 정답: 암태도 농민은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④ 오답: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 ⑤ 오답: 형평 운동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다시 볼 곳 · Q10

---

12 정답 ⑤

- ① 오답: 주체와 요구가 소작 쟁의로 바뀌었습니다.
- ② 오답: 관세 정책과 구별되는 노동 운동입니다.
- ③ 오답: 형평 운동과 구별해야 합니다.
- ④ 오답: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의 노동 운동이며 전시 공출 반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⑤ 정답: 노동자의 요구·연대와 실제 결과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시 볼 곳 · Q11

---

13 정답 ①

- ① 정답: 직접적인 생활 요구와 식민 지배에 저항한 성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 ② 오답: 지주를 비호한 일제의 탄압에 맞서면서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도 띠었습니다.
- ③ 오답: 임금·노동 시간·작업 환경 등 생존권 요구가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 ④ 오답: 소작 쟁의는 소작농, 노동 쟁의는 노동자가 주로 참여했습니다.
- ⑤ 오답: 임금과 소작료는 운동의 핵심적인 요구였습니다.

다시 볼 곳 · Q12

---

14 정답 ④

- ① 오답: 소작 쟁의의 요구·행동과 연결됩니다.
- ② 오답: 국채 보상 운동의 방법·목표입니다.
- ③ 오답: 노동 쟁의의 행동·요구입니다.
- ④ 정답: 한국 상품의 소비를 민족 기업의 성장과 연결하려 했습니다.
- ⑤ 오답: 전시 수탈에 해당하며 물산 장려 운동과 다릅니다.

다시 볼 곳 · Q13

---

15 정답 ②

- ① 오답: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 기회 확대는 여성 운동의 요구입니다.
- ② 정답: 형평 운동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운동입니다.
- ③ 오답: 여성의 지위 향상은 여성 운동의 요구입니다.
- ④ 오답: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는 소년 운동(어린이 운동)의 요구입니다.
- ⑤ 오답: 백정의 신분적 편견과 차별 철폐는 형평 운동의 요구입니다.

다시 볼 곳 · Q14

---

16 **정답 X**

일본 이출량은 제시된 해마다 증가했지만, 생산량은 오르내렸습니다. 두 계열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볼 곳 · Q05

---

17 **정답 O**

법·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모든 관행과 인식의 변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볼 곳 · Q14

---

18 **정답 국가 총동원법**

연도 1938년과 인력·물자의 전시 동원을 함께 기억합니다. 띄어쓰기가 달라도 인정합니다.

다시 볼 곳 · Q07

---

19 **정답 소작 쟁의**

소작농·지주·소작료·소작 조건이 단서입니다. 노동자의 임금 문제와 구별합니다. 띄어쓰기가 달라도 인정합니다.

다시 볼 곳 · Q10

---

20 **정답 물산 장려 운동**

두 구호는 한국인이 만든 상품을 사용해 민족 산업을 키우자는 물산 장려 운동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의 모금과 구별합니다. 띄어쓰기가 달라도 인정합니다.

다시 볼 곳 · Q13

---

21 **정답 (라) → (나) → (다) → (가)**

토지 조사 사업 시작은 1910년, 산미 증식 계획 시작은 1920년, 원산 총파업은 1929년, 국가 총동원법 제정은 1938년입니다.

다시 볼 곳 · Q01·Q04·Q07·Q11

---

22 예시 답안

> 일본 이출량이 늘어 국내 식량 사정이 어려워졌고, 농민은 수리 조합비와 비료 대금 같은 증산 비용까지 부담했기 때문이다.

쌀의 이동과 농민이 치른 비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생산량 변화만 언급하면 농민 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필수 요소

- 일본 이출량 증가가 국내 식량 사정을 어렵게 했음을 설명함.
- 수리 조합비·비료 대금 등 증산 비용 부담이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음을 설명함.

표현이 달라도 필수 요소가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다시 볼 곳 · Q04·Q05

---

23 예시 답안

> 전차와 백화점 등 새로운 시설이 생겼지만 이를 누릴 소득과 조건은 달랐고, 도시 변두리에서 어렵게 사는 한국인도 많았으므로 모두가 풍요로웠다고 볼 수 없다.

시설의 존재와 주민 전체의 생활 수준은 다른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격차를 들어 설명합니다.

필수 요소

- 전차·백화점 등 새로운 시설이 생긴 사실을 인정함.
- 소득·주거·노동 조건 등의 차이를 들어 모든 한국인이 풍요로웠다는 일반화를 반박함.

표현이 달라도 필수 요소가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다시 볼 곳 · Q15·Q16

---

24 예시 답안

> (가) 국채 보상 운동 — 일본에 진 나라의 빚을 갚으려 했다.
> (나) 물산 장려 운동 — 민족 산업을 키워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 했다.

경제적 자주성을 지키려 한 공통점에 더해 직접 목표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가의 목표를 민족 산업 육성으로, 나의 목표를 빚 상환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필수 요소

- (가)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이름과 나라의 빚 상환을 모두 제시함.
- (나)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이름과 민족 산업 육성 또는 경제적 자립을 모두 제시함.

표현이 달라도 필수 요소가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다시 볼 곳 · Q13
